

##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제13차 총회.....



▲ 학술대회 장면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롯데 호텔에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 유혜영)는 제 13차 총회를 개최 회원자격에 따른 대의원을 두고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성원을 하지 못하고 본회가 무산됐다.

회원자격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은 제13차 이날 총회에서 유혜영회장이 정관 제7조 2항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8조의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8월 10일 까지 제회비를 완납한 81명에 대해서만 회원자격이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논란이 일었다.

유회장은 정관 제15조(대의원)에 따라 회원수 50명이상일 경우 대의

원은 7명이며 따라서 당일 참석한 5명의 대의원으로 총회는 성원이 됐다고 선언하고, 또한 대의원 이외에는 발언권 및 투표권 등 제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계순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경기 지부측은 여자치과의회의 회계연도는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8월 31일 까지 회비를 납부치 않았다고 해서 친목단체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8월 10일이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 다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회장의 독단이라고 지적하고 정관 제15조 3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각지부에서 선출하며 지부장 및 총무는 당연직 대의원이 될수 있음에도 각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선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견차이를 줄이지 못한 채 진행되던 총회는 총무보고와 감사보고등 일부 식순이 진행됐으나, 서울지부를 포함한 4개지부장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회무를 집행하지 않는 중앙회와는 같이 일할수 없음」을 표명하고 퇴장함으로써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19명, 대구 7명, 광주2명, 경기1명, 등 총29명이 참가했으며, 서정희, 최금자고문을 비롯해 김찬숙명예회장등이 참석했다.

### 치협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투고규정 등 논의

지난 8월 27일 오전 7시 협회지 편집위원회는 엠버서더 호텔에서 편집회의를 개최, 투고규정(안)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의 협회지 편집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원고가 타지에 게재될 수 없다(본지 681 페이지)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고규정(안) 및 월별 특집순서를 정하는 한편 기획연재 및 덴탈뉴스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덴탈뉴스에 FDI 소식란을 추가 하기로 하였다.

**대한치위생사협회  
제18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김숙향 회장

지난 9월 7일 오전 9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 김숙향)는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종합 학술대

회를 약 2천여명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학술대회 개최식에서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서비스질 높이기 정책을 실시중이니만큼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이기택 치협회장도 치사를 통해 치과의료서비스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치대 이승우 교수의 「타액과 전신질환」을 비롯해, 경희치대 이궁호 교수의 「장애인의 치과관리와 치과 위생사」 이연숙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의 「일하는 여성-무엇이 필요한가?」등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심미치과 치료의 Bonding system, 무균법,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메이킹등의 여러가지 심포지엄도 개최되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문경숙 명예회장이 제3회 인제공로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송경희교수(대구 보건전문대 치위생과)가 학술대상을 수

상하였다.

인제공로대상은 공로가 큰 치과위생사를 시상키위해 지헌택 치협고문이 상패와 상품을 기증해 제정한 상이다.

**96학년도 제1학기  
박사 56명, 석사 76명 탄생**

전국의 10개 치과대학은 96학년도 제1학기 박사 56명과 석사 76명을 배출하였다.

서울치대 고흥섭씨(구강진단학)의 11명을 비롯하여, 경희치대 정연식씨(구강악안면외과학)의 11명, 연세치대 이상희씨(구강외과학)의 4명, 조선치대 허승면씨(치과보존학)의 1명, 경북치대 백상철씨(치주과학)의 1명, 부산치대 서봉직씨(구강진단학)의 3명, 전남치대 송도원씨(소아치과학)의 4명, 전북치대 최현미씨(보철학)의 2명, 원광치대 윤창상씨(예방치과학)의 8명, 단국치대 이동규씨(구강생리학)의 2명 등 총 56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서울대 1명, 경희대 6명, 연세대 11명, 조선대 16명, 경북대 10명, 부산대 1명, 전남대 1명, 전북대 4명, 원광대 8명 단국대 18명 등 총 76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바로잡습니다**

본지 34권 8호(통권 327호)의 p 558의 사진 3→4, 사진 4→3으로 바로 잡습니다.

**조선치대 제7대학장  
정재현교수 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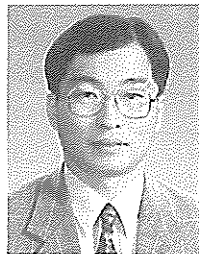


정재현 7대 학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교수직선거 학장선거를 통해 제 7대 학장으로 정재현(보철과)교수를 유임

시켰다.

다시 제7대 학장으로 선출된 정재현 학장은 제6대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치대를 78년(32회) 졸업하였고, 84년 조선치대 전임강사, 88년 박사학위취득, 89년 보철과장, 92년 진료부장을 역임하였다.



강동완 신임 병원장

한편 조선치대 부속 치과병원장에 강동완(보철과)교수를 임명하였다. 신임 강동완 교수는 80년 조선치대를 졸업

하였으며, 85년 조선치대 전임강사, 89년 박사학위를 취득, 92년 교육부장을, 94년 교학과장을 역임하였다.

이밖에 교학과장에 이상호(소아치과) 교수, 진료부장에 조영곤(보존과) 교수, 학과장 및 교육부장에 김동기(예방치학) 교수를 각각 임명하는 등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하였다.